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충남도, 보령 방문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서 전달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23일 인천 영흥 화력·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에 이어 이남 보령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은 전계숙 위원장 등 7명으로,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안내하며,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도의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 도의 계획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장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내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1 $\mu\text{g}/\text{m}^3$, 2013년 42 $\mu\text{g}/\text{m}^3$, 2014년 42 $\mu\text{g}/\text{m}^3$, 2015년 46 $\mu\text{g}/\text{m}^3$, 2016년 48 $\mu\text{g}/\text{m}^3$, 지난해 43 $\mu\text{g}/\text{m}^3$ 로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9 $\mu\text{g}/\text{m}^3$, 2016년 27 $\mu\text{g}/\text{m}^3$, 2017년 24 $\mu\text{g}/\text{m}^3$ 로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석탄화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증설 철회 등 대기환경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대형 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2016년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해 6월에는 ‘중기대기질 개선 관리 추진계획’8개 분야 29개 과제를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이와 함께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했다.

사업으로는 △대량 배출 사업자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등 기후·건강·환경 영향 조사 실시 △탈 석탄 전환환경에 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김정환 기자

정현, 사상 첫 그랜드슬램 ‘4강 신화’

한국선수 최초 메이저대회 4강

최초의 ‘사나이’ 정현이 한국선수 최초로 메이저대회 4강의 대기록을 썼다.

정현(한국체대, 삼성증권 후원, 58위)은 24일(이하 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테니스파크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호주오픈(총상금 5천500만 호주달러/1월 15일~28일/그랜드슬램) 8강전에서 테니스 샌드그렌(미국, 97위)을 2시간 31분 만에 6-4, 7-6<5>, 6-3으로 몰리치고 한국테니스 사상 첫 그랜드슬램 준결승에 올랐다.

정현은 이날 워닝샷과 서브에 이노브한 차분한 팔리로 경기를 주도했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절묘한 네트플레이로 상대 맥을 끊었다. 또한 경기 내내 포핸드로 압도해 이길 수 있었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정현의 완승이었다.

이날 승리로 정현은 한국테니스 사상 단일대회 최다 랭킹포인트인 720점을 획득했다. ATP라이브랭킹 29위에 올라 이형택의 36

위를 넘는 한국테니스 사상 최고 랭킹 신기록 경신을 확실시했다. 또한 상금 88만 호주달러(약 5530만원)를 확보해 한국테니스 사상 단일대회 최다 상금기록도 같이 차지했다.

정현은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준결승전에서 ‘테니스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 2위)·토마스 베르디흐(체코, 20위) 승자와 맞붙는다. 호주오픈 준결승 ‘뽀의 대결’이 불꽃이 될 것으로 다가왔다.

정현은 1세트 초반부터 공격을 퍼붓는 샌드그렌에 침착한 리턴으로 맞섰다. 상대의 잦은 실수에 힘입은 정현은 1-1에서 강력한 포핸드 다운더라이너로 브레이크에 성공했다. 곧 이어 자신의 서브게임에서는 1점에 쫓히는 서브를 앞세워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위기를 벗어났다.

2세트 첫 게임에서 정현은 가벼운 리키버리 스태프로 상대 에러를 유도해 브레이크를 했다. 이후 정현은 리턴게임보다 자신의 서브게임만 지키면서 기회를 엿봤다. 그러나 2-1에서 정현은 샌드그렌의 포핸드 빗치처기에 막

히 결국 브레이크를 당했다.

3-4에서 정현은 포핸드 범실 여러 차례 나와 또 다시 브레이크를 당했다. 곧바로 정현은 꾸준한 스트로크로 팔리를 펼쳐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4-5로 추격했다.

경기 흐름을 알아챈 정현은 직선 포핸드로 상대 왼쪽코스를 두들겨 타이브레이크로 몰입했다. 이번 대회 타이브레이크 승률 100%를 자랑하는 정현은 초반기 싸움에 밀리지 않고 유지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현은 상대 에러에 힘입어 6-5 세트포인트를 잡았다. 이어 강력한 포핸드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2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정현은 3세트 2-1에서 절묘한 리턴에 이어 연거푸 공격을 성공해 브레이크에 성공했다. 주도권을 잡은 정현은 곧 이어 서브게임에 공 4개로 끝내고 격차를 크게 벌였다. 흐름을 탄 정현은 자신의 서브를 차곡차곡 지켰고, 이후 5-3에서 치열한 팔리 끝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태선 기자



신성동 지역 횡단보도 설치 · 좌회전 허용 절실

“주민들 불편 고려없이... 개발허가 해 준 감독 관청 문제”

대전 대덕특구 1단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신성·자운지역 구역 내에 위치한 주שב비스헬스케어 앞 도로<사진>에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허용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신성·자운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주שב비스헬스케어 앞 도로는 현재 편도2차선 도로로이 회사 정문 좌우 각 100m거리에 지운 대 앞 큰길로 합류하는 신호등과 이면도로 신호등 사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중간에 있는 회사 앞 삼거리에 좌우 약 200m를 중앙분리

대로 막아놓았다”면서 “이로인해 주שב비스헬스케어 회사직원 400-500여명은 물론 건너편 삼거리로 진입하는 식당 밀집가 이용객 등 주민들이 도보시에는 좌우 100m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큰 도로에서 진입해 식당가로 가려면 수백m는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주שב비스헬스케어 회사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수 백m를 돌아서 가야한다”면서 “주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제까지 이러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당연히 예측하고 시정을 했어야 할데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없이 개발허가를 해 준 감독 관청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이 지역 좌우에 신호체계가 되어 있으므로, 이 체계를 이용해 횡단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타임이 설정가능할 것”이라고 해 당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속한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사회〉
2018년 새해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대전투데이 전 직원 신년교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18년 1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소: 대전투데이 본사 회의실

제64회 백제문화제 9월 14 ~ 22일 열려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도 개최

제64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9월 14일(금)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충청남도 부여군과 공주시 일원에서 ‘한류원조 백제를 즐긴다’란 주제와 ‘백제의 춤과 노래’란 부제(副題)로 열린다.

24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백제문화의 세계성과 백제문화제의 축제성을 상징화하기 위해 대주제를 ‘한류원조 백제를 즐긴다’로 정하고,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인 ‘춤과 노래’를 반영하여 ‘백제의 춤과 노래’를 부제(副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제는 삼한시대 마한의 전통과 향토음악을 바탕으로 중국 남조 및 고구려 등 외래음악과 악기를 수용하여 독특한 음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통일신라

에 전승돼 우리 고대 음악사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백제의 음악문화는 고대 삼국 중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일본에 파견된 백제악사 등에 의하여 전파된 구다라가쿠(百濟樂) 등은 일본 궁중음악 가가쿠(雅樂)의 뿌리중 하나가 되었으며,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전파한 기악(伎樂)은 일본 가면무(假面舞)의 기원이 되었다.

추진위는 ‘백제의 춤과 노래’를 조명하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오늘날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원조’로서의 백제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는 백제문화제 홍보와 창의적인 디자인 발굴을 위해 제64회 백제문화제 포스터 디자인을 오는 2월 4일(일)까지 공모한다. 포스터 디자인은 제64회 백제

문화제의 대주제 및 부제인 ‘한류원조 백제를 즐긴다·백제의 춤과 노래’를 창의적인 이미지로 표현해야 하며, 현수막 및 거리배너 등 타 홍보물 제작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여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이메일(hhe1202@baekjeong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1편), 금상(2편), 은상(1편) 등 4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금(최우수 3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디자인은 제64회 백제문화제 포스터 제작에 활용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세계인이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던 백제를 체험하고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백제문화제 콘텐츠에 충실하면서도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2018 평창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관광진흥재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 2. 9 - 2. 25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 3. 9 - 3. 18

“사람 중심 행정...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주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24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 청장으로부터 2018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 추진사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먼저, 새해 구정 방향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이행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뒤따라가는 행정, 관 중심의 행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환경을 빠른 행정, 변화와 혁신의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사람의 가치’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민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함께 고민하는 공감 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30년 동안 이룬 성과가 다음 세대는 물론 서구 100년의 미래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신 솔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구정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전 서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고자 구정 비전을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로 제시했고, 그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6대 분야 67개 사업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들이지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민선 6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분명 구정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민선 6기 구민과의 약속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민과의 약속이행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약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실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사업별 시기에 맞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분구 추진을 제외한 66개 사업을 정상 추진(완료 또는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행 완료 및 정상 추진율이 98.5%이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2017년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을 완성한다’는 신이성지(信以成之)의 각오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간 격차 없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 결

과 58개 사업중 49개 사업을 정상추진했으며, 둔산권역에서 아트를 테마로 개최한 ‘서구힐링 아트 페스티벌’은 3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20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는 하수관로 및 도로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원도심의 도시 인프라를 강화했으며, 도마·변동 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설치 사업으로 159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관저·도안 등 신도심권역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이나 가수원동 119안 전센터 이전설치, 관저동 종합체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기성권역은 장태산을 중심으로 반디의 숲 체험장 조성, 등산로 정비, 친환경 캠핑장 조성 등 힐링·생태 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행복이 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일자리 공시 목표의 117%인 6,45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청년지원협의체와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정책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밖에도 도마큰 시장 고객센터 준공, 전통시장 내 시설개선과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재단 없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까지 3년간 45억 원을 투입, 방방용 CCTV를 늘리고 가로등 조명 등을 포함한 도시 시설을 재정비해 총 365일 24시간 재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5년부터 배재대 인근과 둔산여고 주변, 남산공원 일원에 각각 ‘여성 친화 행복 마을’을 조성했으며, 도량 살리기 운동과 탄소 포인트제 운영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친환경 도시 종합대상’과 ‘저탄소 생활실천부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17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 사례관리 운영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촘촘한 복지 급여지원과 누수 없는 의료급여 사업 추진은 2년 연속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장애등급제 폐기 시범사업 추진으로 장애등급 3차 시범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출산 축하 기프트 카드 지원 등 보육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50만 서구민 중 70%인 35만여 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가구 수로는 11만 가구인데 이중 75%인 8만 2500여 세대가 15년 이상 된 주택이며, 건물 노후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고, 공동체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월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가 2014년과 비교해 평균 2.6% 올랐다. 반면 대전 서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3.9% 인하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전용면적 85㎡기준으로 매월 평균 1만 2500원, 서구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약 146억 원을 절감한 셈이며, 관리비 인하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지 관리비 절감에만 있지 않고, 그 동안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무관심, 불신 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목표한 목표한 2만 1656개 중 108%인 2만 3487개를 만들었으며, 산학관이 모여 지역 일자리창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지원센터도 설치했으며, 기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일자리 케어 전담반 운영과 찾아가는 취업박람회·계층별 맞춤형 취업 훈련을 통해 고용 여건을 개선했고, 저임금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임금제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2억 원을 투입해 괴정동에 공동물류창고 건립 추진 중이고, 인터넷 전통시장 구축 및 공동배송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미시간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는?
 서구는 2013년 대전 최초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친화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5대 목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 중 하나인 여성 친화 행복 마을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해 낯고 어두웠던 곳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두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2015-2016년 배재대 인근과 둔산여고 주변에 각각 여성 친화 행복마을 1, 2호를 조성했고, 올해는 탄방동에 제3호 여성 친화 행복 마을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는 계속해서 행복 마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여성 안전 호신술 무료 교육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6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지역 여성병원(7개소)과 여성 안심 병원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치료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노년층이 되는 여성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해결 방안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30대 이

후 출산과 양육 등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출산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큰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여성 고용안정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성 평등, 육아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등 근본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장애인재활성개발·와이더블유시이(YWCA) 등을 통한 법률보조사무원, 식문화 전문가, 베이비시터, 산모돌보미 양성 등 계층별 맞춤형 무료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 축제인 서구힐링 아트 페스티벌은 어떤 축제인가?
 서구는 1998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기점으로 둔산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정부 종합청사, 시청, 법원, 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의 중심도시가 됐고, 여기에 교육과 유통, 의료, 비즈니스, 문화시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살기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밖에 둔산권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이음노미미술관, 국악전용극장을 비롯해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은 문화·예술 활동과 힐링을 할 수 있는 복합여가 공간입니다.
 또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서구가 가진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축제로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도시와 사람을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을 통한 힐링 축제입니다.
 ▲축제의 주요 콘텐츠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집중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7개 분야 10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그중에서도 ‘힐링아트마켓’, ‘아트트리’, 야간 프로그램인 ‘아트 빛 터널’이 핵심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트마켓’은 국내외 활동하는 예술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으로 아트마켓 부스를 디자인하고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 감상 기회를 예술가에게는 작품 판로 확보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트트리’는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기업, 병원, 단체 등이 참여해 보라매공원 내 느티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는 프로그램이며, 참여자 입장에서선 이미지 마케팅의 좋은 기회가 됐고, 축제 관람객에게는 또 하나의 색다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박봉관 기자

세 번째 보라매공원 460m 길이에 수만 개의 형형색색 LED조명을 이용해 만든 루미나리에 ‘아트 빛 터널’은 야간형 축제라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축제 발전 계획은?
 ‘힐링’이라는 주제에 우리 서구만의 독특한 문화를 입혀 매력적이면서 차별화된 아트축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며, 또 좀 더 폭넓은 국내외 유명 예술작가 초청으로 축제의 격을 높이고, 축제프로그램 참여범위를 전국단위로 확대,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대전의 대표축제를 넘어 전국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는 5월 한층 업그레이드 한 모습으로 찾아올 ‘2018 힐링아트 페스티벌’에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 정책 커뮤니티 운영으로 행복 서구 100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6기 약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균형발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삶과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과 청년 창업, 의료 관공사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육육,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를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여성 친화마을과 행복경로망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관저도목적체육관과 한민시장 인근 공동물류창고, 도안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계획대로 임기 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황금 개의 해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서구 일선여 공직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룰 수 있기를 심성구지(心誠求之)의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뜻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마음으로 무엇이 나를 지지해 주신 구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인가를 고민하며, 구민과의 약속이행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겠으며, 끝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가지 있는 변화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봉관 기자



서천소방서, 영양병원 관계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공주소방서, 의당면 남성의용소방대 이·취임식



아산서,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 확대 설치 간담회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사회지도층의 따뜻한 보호 공감 실시



충남동부보호자청 '4대폭력예방' 교육 실시



계룡대근무지원단 '가상화폐 금융교육'

지난해 연안사고(익수·추락 등) 사망자 12% 감소

“지속적인 안전정책 시행으로 연안 해역 사고방지에 최선 다할 것”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작년 한 해 동안 115명의 연안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130명) 대비 12%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연안사고는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해 안전시설물과 구조장비를 보완·확충하고,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안전대책 추진으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발생장소는 해안가 35명(33%), 연해 26명(23%), 항포구 20명(17%), 갯바위·갯벌 12명(10%), 방파제 9명(8%), 해수욕장 5명(4%), 기타 5명(4%) 순으로 나타났다. 갯바위 사고는 전년 대비 47%(10명), 항포구 사고는 31%(9명) 정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방파제(테트라포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익수가 75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34명(30%), 고립·기타 6명(5%) 순이었다.

익수사고는 전년과 동일하게 발생한 반면, 추락 사고는 23%(10명) 감소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연안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으나, 물놀이 활동이 활발한 6~9월에 61명(53%)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되었다.

연안 해역에서의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지기상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위험한 장소 출입으로 인한 실족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상철 해양안전과장은 “다양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정책 시행으로 연안 해역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안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연안에서 레저활동을 할 경우 본인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충남도민 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LH, 국민의 동반자로 2018년 업무 본격 추진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과 상생하는 파트너”



LH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본사와 14개 지역본부 대상으론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LH는 정부의 100만호 주택 공급계획의 75%에 달하는 74.8만호의 공적주택 공급과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등 주요 정책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H는 4년 연속 금융부채 감축(17년 6.7조원)으로 재무건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임대주택 100만호 달성, 쿠팡이츠 스마트시티 수출 등 경영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했다.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인 올해 LH는 정부정책의 성과 창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적서비스 수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 15.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주택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작년에 완료한 기간제근로자 1,263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올해에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질’ 제고에 앞장선다.

LH 분양주택도 기존 주공아파트 이미지를 뛰어넘어 품질과 디자인, 거주성에 혁신을 기하고, 브랜드 문화를 추진하여 민간건설사와 적극 경쟁에 나선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통영신아파트선소부지 등 작년에 공모 선정된 32개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올해 정부 공모사업의 4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동지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가칭)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도 추진되며,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리뉴얼사업, 도심내 장기 방치건 축출 정비사업도 확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사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세종시를 비롯하여 성남고동, 시흥장원 등 1~2년 내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17개 지구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 한해 LH에 주어진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로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당진소방서, 입주주민들의 안전한 피난 위해 설치해야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소방서, 자율소방대 발대식

지발적인 화재안전관리문화 정착시키고자 추진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지난 23일 해미전통시장에서 자율소방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41개 점포, 73인의 상인으로 구성된 해미전통시장의 선제적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화재안전관리 문화 정착시키고자 추진했다. 자율소방대는 해미전통시장 상인회 10인으로 구성돼 자발적

인 활동으로 순찰활동,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화재발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자율소방대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발대식과 함께 시장에 설치된 호스릴소화전 사용 화재진압 훈련과 유지방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청양군자율방범연합대, 신년교례회

대원들의 친목과 단결 위한신년교례회

청양군 자율방범연합대(대장 김만희)는 24일 청양읍 라운웨딩홀에서 자율방범대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원들의 친목과 단결을 위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술년 환금개미의 해를 맞아 청양군자율방범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인사를 통해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대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행사진행은 감사패 전달, 우수지대 및 우수대원 표창, 연합대장 신년사, 축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만희 대장은 새해인사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대원들이 더욱 합심 단결해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단체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동정

제8차 정기총회



북기왕 아산시장은 25일 오후 1시 아산 제일호텔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에 참석.

석문면 연두순방



김홍장 당진시장=2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2018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1차 총회에 참석, 오후 3시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 석문면 연두순방에 참석.

연두순방



이종운 당진시의장=25일 오후 3시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 석문면 연두순방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한상기 태안군수=25일 오후 2시 이원면사무소에서 '2018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

연두순방



이석화 청양군수=25일 오전 11시 30분 청양읍사무소에서 열리는 청양군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윤곡면 연두순방을 실시.



청양군 목면반부패 청렴협약식 열려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지난 23일 면사무소에서 주요 기관·단체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청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노인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주요 기관·단체와 14개리 모든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결의문 낭독, 청렴 협약서 서명,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렴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평소의 의견을 가감없이 밝혀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황우원 면장은 "욕심이 작으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옛 선현의 말씀대로 지금이 순간부터 욕심 버리지 말고 나부터 깨끗하게 살자"며 "앞으로 청렴 캠페인 전개, 토론회 및 공직비리 명령신고센터 운영, 전 직원 5시간 이상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4-20 대동빌딩 7층

당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62억 투입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위해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서 접수

당진시가 올해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한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5동 등 총 275동 규모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농어촌지역 포함) 내에 건축된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이 지원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하는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업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

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또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종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

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주택 1동 당 6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과 부속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대상 주택 1동 당 최대 33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농업전문가 육성 교육 열기 '후끈'

태안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순환

태안군이 지난 9일부터 추진 중인 '2018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하 영농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에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교육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영농교육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의 기치 아래 군 관계자가 8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영농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추진 등 농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상기 군수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군 농정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군 보건의료원과 연계해 할파과 당뇨 등 기초건강검진 및 구강보건 관련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기술교육 21회(3,450명)와 전문농업인반 교육 5회(550명) 등 총 26회에 걸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26일 마무리되며, 군은 이번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력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지역의 창조적 핵심 농업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추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여성친화도시 시대 2막 열었다

당진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당진시가 2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시대 2막을 활짝 열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당진시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자치단체 11곳과 신규지정 시·군·구 8곳도 참석해 여가부와 협약을 맺었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군 시절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5년까지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번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시민참여단 위촉과 여성안심존 구축, 양성평등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진시는 올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참여단도 위촉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여가부와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추진방향과 연차별 로드맵, 주요 추진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무원과 시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성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에서는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의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실적도 점검하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2동 행복키움 반찬 나눔 봉사

아산시 온양2동(동장 전유태)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강준구)은 23일 행복키움 사업 일환으로 저소득 및 독거노인 27가구를 방문하는 반찬 봉사를 실시했다.

반찬 봉사는 2013년 이후 월 2회 꾸준히 단원 및 봉사자들 20여 명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또, 매년 반찬봉사 시 아산시초푸드뱅크에서 생필품, 서울한우살병탕(한상구에서 육수 17병)을 후원해 주고 있다.

강준구 단장은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피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단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니 기쁘고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유태 동장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주고 있는 행복키움추진단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나눔 및 봉사활동이 온양2동 복지회복과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장학기금 누적 예치금 118억 원 돌파

(재)태안군시립장학회, 12년간 1163명 지역 학생 혜택



태안군의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재)태안군시립장학회(이하 장학회)에 모인 누적 장학금이 총 118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회는 그동안 기탁된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7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됐으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누적 예치금액은 118억 891만 251.3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장학회는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지역 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2005년 12월 설립됐다. 특히, 지난 2015년 태안군시립장학회 후원회를 구성, 장학기금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추진하고 기부·기탁자 홍보에 나서는 등 국민 참여를 제고에 나선 결과 2016년까지 105억 원의 장학금을 적립, 100억원 달성 목표를 2년여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1,163명의 지역 중·고·대학생들에게 총 11억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지역인재 육성의 산과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장학회는 장학기금 적립 목표액

태안=김정환기자

겨울철 농업기계 동파조심하세요

시설하우스 난방기 점검·농업기계 보관관리 순회교육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영하 10도를 오가는 엄동설한에도 농업기계 동파예방 및 시설 하우스난방기 점검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농업기계의 적절한 후속관리 및 보관요령 준수를 통해 기계의 수명연장과 유지보수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와 각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난방기 사전 점검을 통해 고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겨울내 보관하는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해 봄 영농철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업기계는 기온이 낮을 때 자연부식이 심해 잘못 보관하면 수명이 단축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기계에 녹이 발생하거나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칠을 한 후 가능하면 습하지 않은 실내에 보관하고, 실내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또한 각종 볼트와 너트는 잠김 상태를 점검해 풀려 있으면 바로 조여주고, 반대로 클러치레버, V벨트는 풀림상태로 보관한다. 각종 오일 상태도 점검해 필요시 교환하고, 교환 후에는 5분정도 가동해 오일이 공급되게 하며 보관



중에도 가끔 가동을 한다. 특히 냉각수는 완전히 빼내어 동파를 방지하며 냉각수 없음을 표기해 냉각수 없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터리는 누전이나 방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떼어놓거나 마이너스(-)단자를 분리해 놓고, 타이어

는 압력을 표준보다 조금 더 넣어서 보관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수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금곡정미소·강청골가든-염치읍 후원협약 체결

아산시 염치읍에 위치한 강청골가든(대표 박옥연)과 금곡정미소(대표 김동춘)가 23일 염치읍 복지회와 기반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기여를 위한 행복키움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청골가든 박옥연 대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에게 연 2회 점심식사 대접을 금곡정미소 김동춘 대표는 연간 10kg 상당의 백미 50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옥연 대표는 "지역의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즐겁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춘 대표는 "추운 겨울 어려운 가정에 백미를 지원하게 되어 마음이 훈훈하고 뿌듯하다.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희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장은 "협약을 체결해주신 강청골가

든과 금곡정미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승만 염치읍장은 "강청골가든과 금곡정미소의 협약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염치읍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월드사무기기 외 2곳-온양1동 후원협약 체결

아산시 온천동 소재 월드사무기기(대표 윤성철), 웨스트우드(대표 김재명), 정해일식(대표 장미란)이 지난 23일,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원광옥) 및 따뜻한마음중합사회복지관(관장 한원수)과 복지회와 기반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기여를 위한 행복키움 후원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월드사무기기(대표 윤성철), 웨스트우드(대표 김재명), 정해일식(대표 장미란)은 온양1동 행복키움기금에 매월 3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조성된 기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원광옥 대표, 김재명 대표, 장미란 대표는 "다른 읍·면·동의 행복키움추진단 활동을 보면서 행복키움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온양1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옥 단장은 "조성된 기금이 의미 있는 행복키움 나눔 활동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회와 실천을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통정

읍면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오시덕 공주시장은 25일 오전 10시 계룡면, 오후 2시 금학동에서 열리는 2018년 읍면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주산면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 오전 10시 50분 미산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사업자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동지역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이완섭 서산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동지역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에 참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민행 보령교육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

밀반찬 지원 프로그램 행사 열려



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현희)에서 주최하는 2018년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밀반찬 지원 프로그램 행사가 23일 다락원 여성의 집에서 열렸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협의체 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명, 금산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직원들 등이 함께 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약 100여 가구에 토종닭백숙과 묵은지 패지고기 볶음, 잡채 등의 밀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했다.

김성용 읍장은 "항상 금산읍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금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금산읍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금산=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042)538-3030

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용 2년새 114% 상승... 재정부담 '골머리'

“자원회수시설 설치 차질 없이 추진”

서산시가 전국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을 입찰한 결과, 통당 19만 5천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매립장의 잔여기간이 불과 1년 6개월에 불과해 2013년부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전역 시비를 들여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폐기물은 일일 84여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연간 처리비용으로 6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28억에서 지난해 41억, 올해 60억으로 2년 사이에 114% 증가된 셈이다.

업체에서는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비용이 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소각처리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시민들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매년 절감되는 수익액의 예산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서산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절감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혼정신성의 마음으로 ‘안전보령’ 이끈다

김동일 시장, 재난관리평가인터뷰서 청사진 밝혀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의 시장방침 아래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 보령 건설에 역점을 두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정신성(昏定晨省)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재난관리평가단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7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기관장의 재난관리 비전, 의지, 지파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위해요소 개선사항 등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 시장은 “국가안전대진단, 어

무창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물놀이 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해있지만, 시민과 관광객의 협조와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협력 하에 대천해수욕장의 3년 연속 전국 우수해수욕장 선정과 4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안전사고 상 황전파 메시지를 일원화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건의 한다”며, “재난의 형태가 복잡 다 변화되고 있어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시덕 시장, 신관동 연두순방

오시덕 공주시장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지난 23일 신관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는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박병수 의원과 박선자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및 신관동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신관동 순회방문은 신관동 관내 기업체 및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업무보고 청취 순회로 진행했으며,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기관단체장 환담 및 시민과의

건의사항에 대해 오시장은 “강북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며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오시장은 “공주시는 자연적, 문화적으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로 관광객들이 공주에 많이 와야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공주시의 좋은 인상을 깊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는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공주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제59대 금산군4-H연합회 김은옥 회장 취임

3농혁신 선도실천으로 자신감 고취



금산군4-H연합회는 58·59대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22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박동철 금산군수 등 내외 귀빈과 4-H연합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은옥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3농혁신 선도실천으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4-H활동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어려운 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는 4-H회, 실천하는 4-H회로 조직화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현재 4-H회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 총 500여명에 이르는 단체로, 학생들의 농심 함양을 위한 화분배심기, 농촌체험활동 등의 과제활동과 공동과제포운영과 영농정착과제활동, 꽃길꽃동산조성과 지역문화축제 봉사활동 등 펼치는 등 지역사회 단체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금산=주연기기자

공주시 신평면, 민원인 강사초빙 친절교육

만족과 감동의 차이를 느끼다



공주시 신평면(면장 양승희)은 지난 23일 ‘2018 올해의 관광도시와 미소·친절·인사로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지역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수준높은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 만족 응대 능력향상과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1회 이상 지역 리더들을 초빙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 바람직한 대응방법 등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월에는 남창희 충남이·통장협의회장을 초대회 공무원의 능동적인 태도에 따른 만족과 감동의 차이, 감동 받아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하는 이웃의 사례 위주로 유익한 강의를 실시했다.

양승희 신평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따스한 종합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서산시 2월부터 시티투어 운영



서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전용버스를 타고 서산의 관광명소, 문화 유적지 및 산업체를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서산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

서산시티투어는 오전 10시부터 서산시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오후 5시까지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관광상품이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관광할 수 있어, 눈으로 보는 관광보다 더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마애여래삼존상, 개심사, 해미읍성 등 역사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역사체험코스와 가족과 함께 간월암, 버드랜드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가족체험코스가 마련됐다.

서울 용산역에서 코레일 관광개발의 관광전용 열차인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서산을 관광하는 기차관광 시티투어도 이색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의 예약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새단장 이달 12일 완료했다.

아울러 동회오토,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체와 연계해 기획된 서산시민의 독특한 상품인 산업관광코스는 홍보효과를 물론 산업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약은 서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나 전화(☎660-2499)로 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만18세미만과 경로, 장애인, 군인은 3000원이며, 관광지 이용 요금 및 중식비는 개별 부담해야 한다.

한만성 서산시 관광산업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역사문화 유적, 축제 등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피시스터즈(SBS오전 8시20분)



화영의 입신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말신과 집성은 예은과의 이혼을 서두른다. 예은은 자신에게는 끝내 허락되지 않던 아기를 화영이 가졌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절절한 슬픔을 느낀다. 다시 한번 예은을 끌어안고 화영은 한껏 고취되어 예은을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꽃피어라 달순아(KBS2 오전 9시00분)

연화(박현정)와 한수(김진세)의 만남을 목격한 태성(임호)은 자신의 끈적이 두 사람의 계약에서 비롯...

케이블 영화

▲캡틴아메리카(OCN 오후 7시10분)

월드(S.H.I.E.L.D)란? : Strategic Homeland Intervention, Enforcement and Logistics Division의 약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 공개되는 트리 스켈리온이라고 불리는 월드의 새로운 본부는 워싱턴 DC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섬에 위치한 건물로 워싱턴 DC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다. 내부에는 월드 소우의 초대형 작전 기지와 세계평화위원회가 위치해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 새롭게 언급되는 세계평화위원회는 어벤져스 작전의 성공적인 활동 이후 월드의 영향력과 책임감이 높아감에 따라 그 운영을 국가차원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트리 스켈리온을 거점으로 한다.

월드가 뒤흔들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어벤져스의 뉴욕 사건 이후 닉 퓨리, 블랙 위도우와 함께 월드의 멤버로 현대 생활에 적응해 살아가는 캡틴 아메리카.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친구 버키가 적 윈터 솔져가 되어 돌아오고, 어벤져스를 향한 최악의 위기가 시작된다.



된 것임을 깨닫고 분개하는 동시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지켜보던 켄타(최철호)는 드디어 송인제화와의 접촉을 시작하고, 달순(홍아름)은 켄타와 만나 열쇠고리를 선물하는데...

▲전생에 퀘수들(MBC오후 7시15분)



나 업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길거야 지석(구원)은 자신을 찾아온 고아(최유영)의 사건을 맡고, 승소를 약속한다. 반격을 시작한 고아. 그런 고아가 드디어 첫사랑이라고 깨달은 지석.

▲마스터(채널CGV 오후 10시30분)

"썩은 머리 이번에 싸다 잘라낸다" 화려한 언변,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 온 원네트웍 '진회장'(이병헌). 반년 간 그를 추적해 온 지능범죄 수사팀장 '김재명'(강동원)은 진회장의 최측근인 '박장군'(김우빈)을 압박한다. 원네트웍 전산실 위치와 진회장의 로비 장부를 넘겨라라는 것.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과 명석한 두뇌로 원네트웍을 키워 온 브레인 박장군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감지하자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진회장은 물론 그의 뒤에 숨은 권력까지 모조리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가는 재능,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돈도 챙기고 경찰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 장군. 하지만 진회장은 간부 중에 배신자가 있음을 눈치채고, 새로운 플랜을 가동하는데... 지능범죄수사대, 회대의 사기범, 그리고 브레인 서로 속고 속이는 추격이 시작된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s program schedules for each channel.

보령도서관, 2018년 겨울독서교실 수료식 성료

2주간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60명 대상 운영



보령도서관(관장 방혜영)에서는 2주간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겨울독서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겨울독서교실은 올바른 책 읽기

'골든슬럼버' 메인

포스터 공개... 기대 모아



와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독서교실 프로그램'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영어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이번 프로그램 수료식에서는 초등학교 40명이 수료했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독서교실에 와서 도서관이 더욱 가까워 느껴졌고, 책도 많이 읽는 즐거움 방학이었다."고 말했다.

보령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개강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도서관(☎934-0929)으로 문의의 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ib.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동원을 비롯 김의성, 한호주, 김성균, 김대명 등 실력과 배우들이 가세해 기대를 모은 영화 <골든슬럼버>가 강동원의 숨막히는 도주 현장을 포착한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감독 노동석 | 제작영화사 집 | 제작/배급 CJ 엔터테인먼트]

<골든슬럼버>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의 도주극을 그린 영화다. 강동원의 차기작이자 김의성, 한호주, 김성균, 김대명까지 가세한 골든슬럼버로 화제를 모은 영화 <골든슬럼버>가 한순간 암살범으로 몰린 강동원의 긴장감 넘치는 도주 현장을 담은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골든슬럼버>의 메인 포스터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평범한 남자 '건우' 역으로 분한 강동원의 역동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영화 <골든슬럼버>는 오는 2월 14일 개봉 예정이다.

JTBC '미스티' 김남주X지진화... 쇼윈도 부부 포스터 공개

오는 2월 2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JTBC 상반기 기대작 '미스티' 김남주, 지진화 부부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한 편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과 서로 다른 곳을 향하는 시선,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째는 보이는 것과 달리, 명분만 남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오는 2월 2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미스티'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고혜란(김남주 분)과 그의 변호인이 된 남편 강태욱(지진화 분), 그들이 믿었던 사랑의 민낯을 보여주는 격정 멜로드라마다.

24일 공개된 포스터에도 알 수 있듯, 남들 눈에는 신뢰도 1위의 앵커와 명망 있는 법조계 집안의 외아

들이라는 완벽한 스펙과 배경의 조합이지만, 실은 각방을 찢고 5년째인 혜란과 태욱.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 동반 모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철저히 거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 것.

하지만 어딘지도 모를 성공을 좇는 혜란은 이를 철저히 숨긴 채 행복을 가장했다. 그 악착같은 자존심에 태욱이 지쳐갈 때쯤, 어느 날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혜란.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내 혜란의 변호인이 돼 다시 사랑에 빠지는 태욱.

연기하는 캐릭터마다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매력을 선보이는 김남주와 지진화, 두 사람의 색이 입혀져 더욱 흡입력을 걱정 어쩔 멜로와 그 뒤에 가려진 진실에 궁금증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다.

관계자는 "김남주, 지진화의 부부 포스터가 공개됐다. 프로답게 촬영 현장 전체를 아우르고 서로 맞춰준 덕분에 결미는 아름답지만, 속은 망가진 쇼윈도 부부 혜란과 태욱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담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 속 문구처럼 이들이 각자 '갖고 싶고 했고 싶고 지키고 싶었던' 욕망은 무엇인지, 그 속의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지켜봐 달라. 또한, 혜란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점점 변해갈 혜란, 태욱 부부의 이야기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미스티'는 '드라마 스페

광고문의 (042)538-3030



아산소방서, 요양병원 소방안전교육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지난 23일,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약자시설에 관계자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피난약자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LINC+사업 연합세미나 개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은기)는 23일 오후 4시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연합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남대 재찬인 연합동문회 총회 개최 재찬인 충남대 연합동문회(회장 민경호)의 총회가 23일 오후 6시 30분, 천안 아이비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합동문회 행사는 오덕성 총장, 구본영 천안시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비롯하여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적십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기축위생지원본부와 사랑의 헌혈 약정식 헌혈100회를 기념해 김용상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왼쪽)이 24일 아산시 사육에서 사랑의 헌혈 약정식 체결 후 김인순 기축위생지원본부 충남본부장(오른쪽), 노동당 사무국장(가운데)에게 명예대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대 법률상담소 · 법학연구소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소장 손종화 교수)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는 23일 오후 3시,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남숙)과 공동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관련 법률 및 전자문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학생, 지역 소비자단체 임원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법률상담소 컨퍼런스는 지역사회 공헌과 학생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학에서 법학, 소비자학, 법률적 의견을 제시해 시민단체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학생이 참여해 사회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정복기자



청양군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가져

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회장 강영남)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시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생활개선회는 사랑의 전담장 담그기 봉사를 시작으로 ▲생활기술과제교육 ▲농촌여성학숙동아리 참여 ▲생활개선 실천행사 ▲고추구기자축제 참여 ▲5대 과제실천 등의 계획을 세웠다. 청양=정성범기자

육군학생군사학교 주관한 종합평가와 교육훈련 평가 호서대, 2017년 최우수 학군단 표창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학군단이 최근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주관한 종합평가와 교육훈련 평가에서 '2017년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8일부터 19일까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실시된 '2018년 동계입영훈련'에서 흑관과 폭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후보생 전원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전국 11개 학군단 중에서 2등으로 우수 표창을 받았다.

이번 동계훈련에서 전체 개인 3등의 성적과 특급전시를 획득한 장민 후보생(신소재공학과)은 "그간 학군단에서 단장님과 훈육관의 가르침대로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며 "상



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명문 호서대 학군단에 소속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호서대 학군단은 수준 높은 L&T(Learning & Teaching) 교육법과 학군단장을 비롯한 교관 요원과 학군사관 후보생의 강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학군단장 박정근 대령(육사 42기)은 "그간 뜨거운 여름의 열기와 영하 20도의 흑관과 폭설, 미세먼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올바른 인성과 강인한 체력을 갖춘 전투 프로 소대장이 되기 위해 자신

을 뜨겁게 담금질한 후보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조국수호에 이바지할 유능한 장교 육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서대는 학군사관후보생의 매년 동·하계 입영 훈련시 후보생의 훈련현장에서 격려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학군사관 후보생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호서대 학군단은 지금까지 장교 968명을 배출했으며, 국방부 평가 우수학군단, 임관종합평가 전원합격의 전통을 이어가며 명문 학군단으로서의 위상을 높혀 나가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등정

정기총회



김진수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회장 = 25일 오전 11시 도지부회의실에서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 정기총회를 주관.

서산시, 세계적 동화작가

도밍게즈의 '바보 닭 추라'



남이섬의 NAMI BOOKS에서 출간한 그림책 '바보 닭 추라'가 서산 원도심 변화1로의 창년문화공간 '문화잇슈'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원화전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본 전시는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과 남이섬이 공동 주최, 주관하고, 서산시가 후원한다. 2010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에 초대 받아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스페인의 세계적인 동화작가 산 토메즈 도밍게즈의 '바보 닭 추라'는 6개국 언어로 출간됐다. 특히 안테르센상의 후원사 동화나라 남이섬의 그림책 출판사에서 펴낸 세계적인 스테디 셀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화전과 함께 다양한 동화책이 전시된 북카페도 오픈하여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월 26일 ~ 2월 25일까지(10:00~19:00)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서산=김정한기자

송촌정수사업소 김성용 주무관

제3회 수돗물 시민대상 시상식 '대상'



송촌정수사업소 김성용<사진> 주무관이 (사)수돗물 시민네트워크 주최로 24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회 수돗물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수돗물 시민대상'은 수돗물의 가치 향상 및 수돗물 응용향상, 상수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더불어 상수도 종사자의 사기함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2016년 처음 만들어졌다. 김 주무관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상수도의 위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 주무관은 "그간 상수도 분야에서 근무한 공적생활을 인정 받고 격려해주시는 상인 것 같아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백석대 학생군사교육단, 표창 받아

'2017 종합 우수 학군단' 선정 쾌거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학생군사교육단(단장 고경국)은 지난 19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17 종합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천안=채기범기자

백석대 학군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8회 종합우수학군단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학군단 운영 우수' 부문에서 인정을 받아 표창을 하나 더했다. 전국에는 총 111개의 학군단이 있으며, 그 중 12개의 중령급 학군단이 '종합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고, '학군단 운영 우수' 부문은 전국 2개 학군단이 선정됐다. 백석대 학군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교육, 검찰 등 지도방문 결과와 하계병영훈련성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 같은 영예를 안게 됐다. 천안=채기범기자

충남도립대 교수 '알버트 벨슨 평생 공로상'

이원구 · 박상우 교수, 연구성과 탁월성 인정 받아



사진왼쪽부터 이원구 · 박상우 교수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컴퓨터정보과 이원구 교수와 환경보건과 박상우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발간 기관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2018 알버트 벨슨 평생 공로상(2018 Alba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알버트 벨슨 평생 공로상은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기려 수여하는 상이다. 이원구 교수는 정보 처리 기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과 관련된 SCI급 논문 등 130여 편의 연구 성과를 내고, 정보 처리 연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상을 받았다. 박상우 교수는 환경(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기술 등과 관련해 SCI급 논문, 국내 학술등재지 논문, 정책리뷰 등 150여 편의 연구 성과를 내며 환경·자원순환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이번 상을 받았다. 정성범기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홍성군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위한 사랑의 선물 전달식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23일 홍성군청에서 열린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홍성군의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환 홍성군수, 홍성군기업인협회 이병석 회장, 명근영 부회장, 적십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사랑의 선물 세트는 10만 원 상당의 담요, 운동복, 내의 등의 생필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 온 홍성군의 외국인 근로자 17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지난 12월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나눔 실천에 함께해오고 있으며, 산, 공주 등의 지역에도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를 계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범기자



한밭대, 2018 가족회사 교류회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3일 오후 4시부터 대전 ICC호텔에서 가족회사 교류회를 개최했다. 송하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가족기업은 한밭대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향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한밭대는 학생과 기업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성과가 우리 학생들을 키워준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산학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대화건설산업(대표 김희철) 등 9개 기업이 새롭게 한밭대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복기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송하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가족기업은 한밭대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향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한밭대는 학생과 기업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성과가 우리 학생들을 키워준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산학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대화건설산업(대표 김희철) 등 9개 기업이 새롭게 한밭대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복기자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꿈을 꾸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사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탐색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back view



front view



작 품 명 위인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650*800*2300

작품특징 위인상은 양면조형물로 앞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신사임당 뒷면은 아인슈타인 링컨, 헐렌켈러의 흉상으로 조각되어 있어 위인들의 삶과 위대함을 배우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대표브랜드

I LOVE
Artschool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도원초등학교 특강, 특강의 장미
- 진장초등학교 기하학당
- 도달초등학교 원서
- 나래초등학교 사계당
- 해랑초등학교 사계당, 기하학당, 기하당

- 연봉초등학교 사계당
- 월랑초등학교 동산
- 속초삼다리 유치원 사계당
- 석정초등학교 기하학당

조형물/조형물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